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⑩ 선승의 효 · 불효



▶한줄요약
속가에 부모를 남기고 떠난 출가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효도를 할 수 있다. 첫째, 돌아가신 부모가 극락왕생하게 천도하는 것이다. 둘째, 살아있는 부모가 수행하여 득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출가자의 두 가지 효행 방식

11. 속가 가족과의 절연

출가는 속가 가족에 대한 애착을 끊는 것이다. 출가자에게 가족은 다가가지 말아야 하고 출가자도 가족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가족주의가 강고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출가자는 가족관계 탓에 간단치 않은 경우를 겪기도 했다. 황벽 희운이 노모에 대해 보인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선승들도 서슬 푸른 칼날처럼 결기를 보였다.

보문(普門, 1906~1956)은 부인과 아들을 두고 출가했다. 남겨진 가족이 밑바닥 삶을 고통스레 꾸려가는 것을 본 어른들은 보문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욕을 퍼붓고 환속시키려 했다. 1950년 어느 날, 열차 안에서 속가 동생은 삿갓 쓴 스님이 자기 형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동생이 "형님 저 현기(속가 동생의 이름)입니다"며 다가갔지만 보문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다가간 동생이 형님의 속가 이름을 부르자 보문은 다른 칸으로 빠르게 옮겨가 버렸다. 동생은 따라가며 형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보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서른에 홀로 된 부인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약과 떡과 묵을 팔았다. 십리 길을 오가며 두 마지기 땅 농사도 지었다. 아들도 미꾸라지, 메기, 잉어 등을 잡아서 5일 장을 돌며 팔았다. 끝까지 다닌 학교도 없었다. 그가 입지전적으로 단양군수가 된 신상철이다. 신상철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 특히 보문이 부산 국제시장과 대구 칠성시장 등지에서 청아한 목청으로 〈반야심경〉 염불을 해주고 그곳 상인들로부터 많은 시줏돈을 받아 범어사 중건에 큰돈을 보시하고 상이군인이나 무의탁 빈민들을 도와주었을 때가 어머니와 자기가 굶어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더 야속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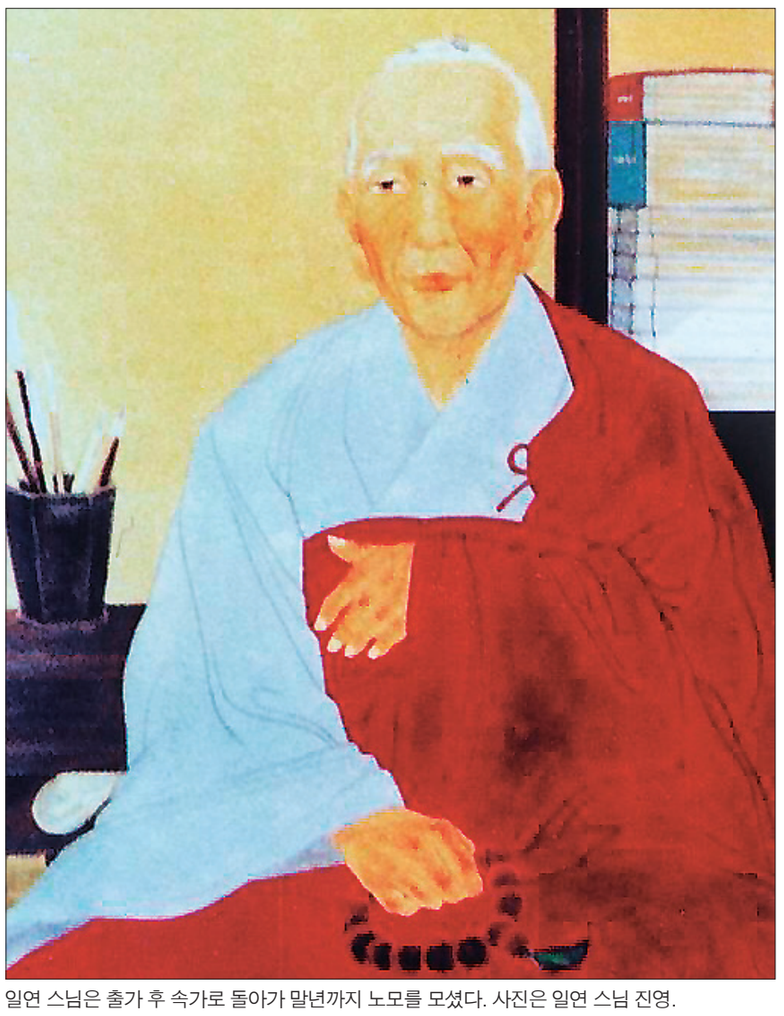
효봉은 출가한 지 10년여가 되던 때 신부를 데리고 찾아온 아들을 외면하고 돌아앉아 정진을 이어갔다. 법전(法傳, 1925~)은 출가 전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잘 때도 여동생을 밀어내고 어머니 곁에 누웠다. 그러나 본격적 수행을 시작하면서 속가로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다.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축원을 올리지 않았고 향 한 개도 꽂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사촌형이 토굴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말을 꺼내지 못하자 사촌형이 대신 말했다. 가슴앓이 병으로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막내아들을 보아야만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애원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는 아버지에게 법전이 말했다. "저는 집을 떠나온 출가자입니다. 부모 형제를 위한 발걸음이라면 그쪽으로 한 발도 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떠나갔다. 얼마 뒤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전하는 부고장이 왔다. 법전은 어머니 초상에도 가지 않았다. 부모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하며 수행하겠다는 자신과의 다짐을 끝까지 지켰다.

12. 속가로 돌아간 선승

다시 속가로 다가간 출가자의 사연도 기구하다. 일연(一然, 1206~1289)은 국사로 추앙받았지만 고향 경산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상소했다.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였다. 귀향한 일연은 노모가 96세로 별세하기까지 봉양했다.

세염(洗染, 1340년대~1415)은 고려가 망하자 황급히 출가했다. 아들이 승려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안 어머니는 "네가 고려 조정의 충신이 되기는 했지만 이 어미가 아직 살아있거늘 어찌 차마 부모가 물려준 몸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통곡했다. 세염이 사죄하며 말했다. "불충하고 불효하느니 차라리 불충하기는 하되 어머니 뜻만이라도 받들겠습니다." 세염은 이내 표정을 밝게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어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가시게 했다. 머리카락을 당겨 묶으니 머리카락이 두 자나 자라났다고 했다. 승지와 참의 벼슬까지 하며 어머니를 봉양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상을 치른 뒤 가야산으로 들어가 승려 생활을 이었다.

출가자 본분 위해 속가와 절연
반면, 끝까지 부모 봉양하기도
부모 제도해 '이고득락' 이끌어
속가 가족의 연이은 출가 유도



일연 스님은 출가 후 속가로 돌아가 말년까지 노모를 모셨다. 사진은 일연 스님 진영.

고경(古鏡)은 노모가 늙어 홀로 지내시기 어렵게 되자 노모를 통도사로 모셔와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어머니께 염불수행법을 가르쳐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서 편안히 돌아가시게 했다.

정일(正日, 1932~2004)은 가장 치열하게 수행하는 수좌로서 10년 결사 정진으로 공부가 깊은 단계에 이르렀다. 조금만 더하면 일대사를 마칠 것이라는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정신질환과 치매를 앓게 되고 속가에 모실 가족이 없는 사정을 알게 되면서 "공부를 늦추더라도 노모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선방에서 나와 백련사의 주지로 내려갔다. 노모가 정신이상으로 발작과 착란을 일으키면 회초리질을 하면서 보살폈다. 그럴 때도 화두를 놓은 적은 없었다. 노모는 스님 아들의 무릎을 베고 아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처럼 출가자는 속가 가족의 특별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방편과 권도를 택하기도 했다. 부모를 모실 형제자매가 없을 때 부모 봉양을 위해 용맹전진을 미루기까지 한 것이다.

13. 출가자의 진정한 효행

일연(一然)은 말년에 노모를 모셨지만 정작 그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출가자의 효행은 좀 달랐다. 조동종(曹洞宗) 종조인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가 그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는 우리나라 승려들이 두루 읽었고 일연이 조동종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편지 내용이 일연에게 적극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동산 양개는 "어머니는 마음을 가다듬어 도를 닦는 데 뜻을 두시고 공에 귀의함으로써 이별의 정을 품지도 마시고 문가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라고 했고, 승려는 "도를 사모하고 선을 참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은덕에 보답한다"고도 했다. 어머니도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며, "나는 네가 목련존자같이 나를 제도하여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위로는 불과(佛果)에 오르기를 바랄 뿐이다"고 부탁했다.

출가자가 선을 참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은덕에 보답한다는 것이 동산 양개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받든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를 제도해주기를 소망했다. 과연 일연은 이런 뜻과 상통하는 출가자의 사연을 〈삼국유사〉에 실었다. '진정 스님이 효와 선을 다 이루다[眞定師孝善雙美]'에서 품을 팔아 노모를 봉양하던 진정(眞定)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하려 했으나 그 어머니가 당장 출가하라고 강권하여 바로 의상 문하로 출가했다. 3년 뒤 모친상 소식을 들은 진정은 7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 깨어났다. 의상은 진정의 어머니를 위해 90일 동안이나 화엄 대전을 강의해주었다. 강의가 끝난 날 밤 어머니는 진정의 꿈에 나타나 자기가 천상에 왕생했다며 고마워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두고 출가한 진정이 결국 어머니를 구원한 것이다. 진정의 죽은 어머니 자리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넣으면 진표(眞表)의 출가담이 된다. 진표는 출가하여 득도하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 진표는 아버지의 수행을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효도를 다했다.

속가에 부모를 남기고 떠난 출가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효도를 할 수 있다. 첫째, 돌아가신 부모가 극락왕생하게 천도하는 것이다. 둘째, 살아있는 부모가 수행하여 득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연은 둘째를 더 바람직한 경우로 추천했다고 하겠다.

14. 출가는 또 다른 출가로 이어져

끊어진 가족관계는 더 근원적으로 복구되기도 했다. 연이은 출가를 통해서다. 상근(祥根, 1872~1951)의 어머니 창수는 두 딸을 두고 출가했다. 이어서 언니 금전(錦典)이 출가했다. 2년 뒤 상근도 출가했다. 어머니 창수가 두 딸의 은사가 되었으니 속가 세 모녀가 은사와 상좌 간 불연을 맺고 수행을 이어간 것이다. 벽초(碧初, 1899~1986)의 아버지 연등은 진표의 아버지처럼 아들과 함께 출가하였다.

법안(法眼, 1902~1955)의 출가는 질녀 응민(應旼, 1923~1984)과 생질 일타(日陀, 1929~1999) 남매의 출가로 절정에 이른 41명의 일가족 출가의 시작이었다. 장남 법안이 출가하자 아버지 추금(秋琴, 1878~1947)이 출가했다. 막내 진우(震宇)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출가했고 셋째 용학까지 출가했다. 어머니 강씨(姜氏)가 아들들을 만나러 백련암으로 갔다가 아들의 권유를 받아 출가했다. 네 형제 중 마지막 남은 용명도 해인사로 출가했다. 1940년, 법안 집안의 남은 가족들도 전 재산을 정리하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법안의 장인 장모와 처남 둘도 출가했고, 집안 머슴들 가족 6명도 따라서 출가함으로써 일타(日陀)의 외가 쪽 35명이 모두 출가했다. 일타의 친가는 6명이었는데 일타의 누님이며 맏딸인 응민(應旼)이 첫 출가자였다. 외할아버지 추금의 권유로 응민이 출가하자 남동생 월현(月現)이 이어 출가했다. 응민의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마련해준 다음 막내딸 쾌성(快性)과 함께 윤필암으로 출가했다. 응민의 아버지 김봉수는 1942년 일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만공 밑으로 출가했다. 이어 일타도 통도사로 출가했다. 드디어 일타의 친외가 41명의 출가가 완성되었다.

성철과 청담과 관응(觀應, 1910~2004)의 딸들도 출가했다. 불필(不必, 1937~)과 묘엄(妙嚴, 1932~2011)과 명성(明星, 1930~)이 그 딸들이다. 경허의 형 태허 성원(泰虛性圓)은 경허보다 먼저 출가했다.

출가자를 따라서 속가 가족이 연이어 출가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다. 출가한 남편이 부처님으로 돌아오자 부인 야소다라는 아들 라훌라를 시켜 부처님께 유산을 요구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라훌라의 머리를 깎게 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일곱 가지 고귀한 유산을 베풀 것이다" 라훌라는 법재(法財)를 받아 세속을 뛰어넘는 상속의 주인이 되었다. 부처님은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외동아들을 출가시킨 것이다. 윤회하고 파멸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이다. 부처님은 길러주신 이모 마하빠자빠디, 아내 야소다라, 사촌 아난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석가족을 출가하게 했다. 출가로 인해 조각나 버려진 가족관계는 위대하게 다시 연결되었다. 출가는 출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가였다. 선승이 끊기도 하고 잇기도 하는 것, 살활자재다.

〈연세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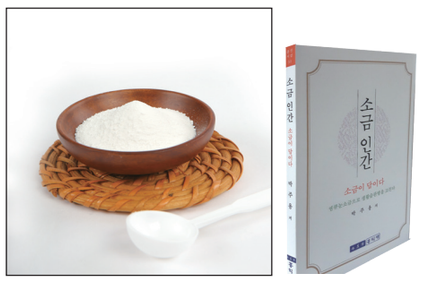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SINCE 2002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